

수술 후 사용하는 유착방지제 개발, 유럽시장 진출

수술후 염증 및 유착 막는 신개념 유착방지제 `메디커튼` 개발
KFDA 승인 및 CE 인증 획득으로 국내 및 유럽시장 진출 본격화

기사입력 3124/16/17 25:28:22

국내 연구진이 개발해낸 수술 후 염증과 유착을 막는 새로운 유착방지제가 유럽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.

한세광 포스텍(POSTECH)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신풍제약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신개념 유착방지제 `메디커튼`이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(KFDA) 승인을 받고 유럽연합 CE(Comunauté Europeenne) 인증에 성공해 유럽 의료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.

일반적으로 여러 형태의 수술 후 피부나 막이 염증에 의해 유착되는데, 이러한 유착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드는 제품이 바로 유착방지제다.

한 교수팀은 안구, 혈액, 안구 등에 존재하는 생체고분자인 히알루론산(Hyaluronic acid)과 혈액보조제나 인공혈액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이드록시에틸스타치(Hydroxyethyl starch)를 사용해 새로운 개념의 유착방지제 `메디커튼`을 개발했다. 또한 한 교수팀은 세브란스병원 등 6개의 병원에서 자궁내막근종 등 자궁경을 통한 수술 환자 213명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과 서울아산병원 등 3개의 병원에서 복강경 수술환자 91명에 대해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 메디커튼의 유착방지 효능을 확인했다.

한세광 교수는 "이번 연구에서 개발한 제품은 포스텍과 신풍제약의 산학연구를 통한 첫 사업화 사례"라며 "현재 진행 중인 공동연구를 통해 다양한 나노의약 제품을 상업화하여 바이오.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"고 밝혔다.

[김미연 기자]

[© 매일경제 & mk.co.kr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